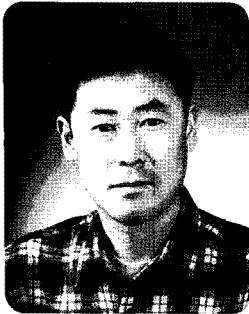


2010년도 정책연수 기행문

(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경상북도지회 총무 권태종



인도네시아 (10월19일~10월24일)

전문 입업인 정책연수를 준비 하면서 바쁜 개인적 일상으로 다급히 장도에 올랐다.

18일 하오 일곱시 오십분 영양에서 일부러 동행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대구까지 나와 나를 기다리던 정동화씨의 차를 타고 수성 톨게이트를 들어서자 인천공항 주변에 예약했던 게스트 하우스 주인인 듯한 사람이 몇 시 까지 도착이 가능한지 계속 확인전화가 오는 듯 전화기를 든 정형의 대화가 재촉을 받는 것 같아 내심 미안함에 어쩔줄을 몰랐다.

규정상 저녁 열한시까지의 입실을 해야 한다가에 시간에 쫓겨 경부고속도로를 가득 매우고 달리는 심야운행 화물트럭 사이를 비집고 카레이서 마냥 전속력으로 인천공항을 향해 달렸다.

그 와중 피곤에 지친 나는 어느새 염치없이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십이시 사십분, 문득 잠에서 깨어 눈을 뜨는 순간 내 시야에 들어오는 휘황한 조명은 촌놈의 눈을 현란하게 유혹했다. 지면과 매체를 통해서만 봐왔던 인천공항 진입도로와 인천대교의 웅장함과 현란한 야간조명을 받고 우뚝 서있는 주탑을 지나는 기분은 역시 세계로 통하는 한국의 관문 이로우나 하고 내심 감탄의 기분이 한층 고조 되었다.

열한시 십분을 지나며 숙소 주인이 알려준 이마트 주변을 배회하다 이십 여분을 더 지나 겨우 목적지에 당도 하였다.

나는 처음으로 접하는 해외 나들이 인지라 호기심과 설레임으로 뒤적이다 잠이 들었다.

19일, 다소 서둘러 일어나 인근 상가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숙소에서 제공한 미니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여덟시가 조금 덜된 시각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디 카운터 앞 집결이라는 메시지를 따라 정동화씨와 나는 디 카운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지만, 낯익은 동료는 보이지 않았다.

어! 이상하다. 약속 시각이 지나가고 있을 쯤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안내자로 되어있는 사람에게

회원기고

전화를 돌리니 모두들 약속장소에 나와 있는데 우리 둘 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다.

이런 쟁쟁 분명 우린 디 카운터 주변을 맴돌고 서성이고 있었지만...

전화 통화를 하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의자에서 인원파악과 수속준비에 분주한 일행을 만날 수 있었다.

처음이란 단어의 의미심장함 이란...

탑승 수속을 마치고 면세코너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물품들을 준비 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물론 준비목록 일반 소주를 비롯하여...

열시 삼십오분, 우리를 실은 가루다항공(GA 871 전용버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힘차게 이륙했다.

어제 밤 보았던 화려한 조명아래 보이던 인천공항 주변의 경치는 간데없고, 흐릿한 시계사이로 보이는 개발의 흔적만이 바쁘게 돌아가는 건설 현장의 움직임이며, 점점이 박힌 섬들이 점점이 보이다 사라졌다.

정오를 넘길 시각쯤 일기사정으로 기내에서 움직이지 말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방송과 함께 기체가 구름 위를 지나며, 시골 비포장 자갈길을 달리듯 덜컹거리는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십삼시 십분 기체가 점차 안정되게 운항을 계속하자 기내식으로 중식을 마칠 수 있었다. 일기 사정이 호전 된 듯 조용히 운항이 계속되고 창문 아래로 펼쳐지는 양떼구름과 초원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드넓은 대양위로 쏟아지는 태양이 조사되어 연출되는 자연 경관과 만년설이 쌓인 듯 한 거대한 구름층이 한마디로 멋있다는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을 뿐...

십육시 사십오분, 또다시 고요하던 기체가 덜컹거리며 요동친다.

십육시 오십사분 착륙준비 안내방송과 함께 서서히 선회하는 기체의 움직임을 느낄 쯤 점점 지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리저리 이어진 해변가와 드넓은 섬들과 점점이 보이는 건물들이 보이더니 서서히 기체가 바다로 빨려들듯 고도가 점차 낮아지다가 덜컹 하며 랜딩..

십칠시 경 응우라라이 공항(발리)도착

조용한 지방공항 정도로 느껴지는 작은 공항으로 후끈하게 다가오는 열대성기후에 우리나라에서 한 여름 제주도를 찾은 듯 한 착각이 밀려온다.

공항의 승객 대부분이 아시아계 인들로 보이고, 길게 늘어서 도착수속을 밟으며 주변에 보이는

여러 환경들은 외국이구나 하는 분위기와 함께 마치 일본에 온 듯한 느낌

모든 안내책자와 간판들...

입국 수속을 밟으며 나는 의례껏 그 지역 관광 가이드북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판대 안내부스를 찾아도 일본어 관광 가이드 맵 뿐 한국어는 고사하고 영어 가이드 맵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

마치 시골역 대합실을 연상케 하는 발리의 첫 인상은 특이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조금은 나이가 있어 보이는 한 여성이 우리 일행에게 일일이 꽃목걸이(인니 국화인 캄보자를 실로 꿰어 만듭)를 걸어 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통상 환영의 인사와 함께 수고로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리라 짐작에 안내자(여행사)에게 물어보니 그냥 걸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 제사 목걸이를 사양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던 일행들도 쓴웃음을 지으며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만져보며 캄보자 향기에 취해 우리를 안내할 버스를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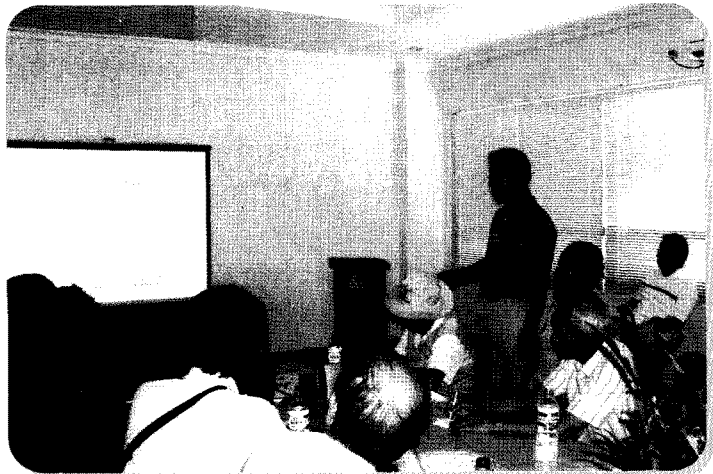
얼마나 기다렸을까 작달막한 키에 적당히 건장한 체구의 젊은 친구가 나타났다. 우리를 안내할 현지가이드 란다 이름은 "반대"씨 한국어가 매우 유창하게 느껴졌다.

십칠시 십오분 이상하게 생긴 검은색 중형버스(25인승)가 나타나 우리를 태우고 발리 시내를 나섰다.

인구 약 400만명 면적은 제주도의 2.7배 정도이며 도둑이 없고, 들개가 많고 힌두교신자가 가장 많다는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발리의 영웅 우라라이 동상을 지나며,

우선 외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관광 정보가 매우 일천한 나로서는 매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차량은 모두 좌측통행 그것도 운전석이 우측에 붙어있고 대부분 도오다 혼다등 일본산 차량의 행렬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운전수 외 조수(차장)가 있으며 왁자지껄 쏟아져 나오는 오토바이 행렬들 사이로 꼭예 하듯 달려가는



회원기고

교통 흐름에 화물을 가득 실은 적재함에 매달려 달려가는 발리의 첫 인상은 아찔한 곡예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기에 족했다.

발리 시가지를 지나며 좌우로 이어진 높지대를 뒤덮고 자라는 맹그로브나무를 보며 얼마를 지나고 우리나라 시골지역을 연상케 하는 굴곡과 요철이 심한 좁다란 시멘트 포장도로를 지나 저녁 다섯시 오십분 저녁 식사를 위해 코키라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찾았다.

한국에서 흔히 온실식물로 볼 수 있었던 부겐베리아가 갖가지 형색으로 피어 있어 그나마 한국에서 익히 보았던 추억을 되돌려 주었다. 저녁식사 메뉴는 김치찌개로 식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멀건 김치 국물에 대충 조리한 듯한 너무나 평범하고 조촐한 식사에 일행들은 한결같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관심사는 단연 그 지역의 술 문화였다. 시원 이라는 상표를 단 국산 소주 한 병이 우리 화폐 17,000원 가량, 알렉 이라는 안동소주와 맛과 알콜 함량이 비슷한(40%) 전통주가 맥주 한 컵에 1달러에 판매되고 있었다.

저녁을 마친 우리는 호텔로 가는 길에 제법 큼직한 마트에 들렀다. 열대과일을 사려고 들렀는데 망고를 비롯한 바나나, 망고썬, 로니, 살라 등 이름 모를 열대과일을 종류별로 조금씩 골라 담아 숙소로 향했다.

니코 호텔(NICO CLASS)에 도착하자 고전적인 분위기와 전통의상을 개량한 듯한 차림의 종업원들이 우리를 맞았고, 여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방 배정에 대하여 다소 이견들이 있었으나, 모두들 자기가 편리한 대로 룸메이트를 정한 후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간단한 짐 정리와 샤워를 마치고 일행은 모두 한 방으로 모여 마트에서 사온 열대과일을 안주로 각자 챙겨온 소주로 여행 첫날의 무사함을 자축하는 소주파티로 하루를 정리하며 결산하고 있었다.

분주한 소주 파티가 한창일 때 일행 중 가장 연세가 많은 듯한 분이 여행용 가방이 열리지 않는다며 내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흔쾌히 그러자며 그분의 방으로 갔다. 그러나 여행용 가방은 여느 것과 별 다르지



않았으나, 내게 건네준 열쇠가 들어갈 구멍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이리 굴리고 저리 훑어 봐도 나로서는 어찌해 볼 방법이 없었다.

마침내 호텔 투숙 시 주지사함이 떠올라 1,500명의 종업원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다는 가포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방으로 찾아온 종업원에게 사정을 얘기 했더니 그 역시 굳게 닫힌 가방을 열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열쇠 전문가를 불러 달라고 부탁하고서 또다시 한참을 기다리자 외부에서 초청한 열쇠수리공이 림으로 찾아와 노크를 할 쫘 호텔로비에서 연락이 와 혹시 가방이 바뀐건 아닌지 다른 호텔에서 가방이 바뀌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 함께 탑승했던 비행기 승객들이 묶고 있는 호텔로 속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방 주인은 뒤바뀐 자신의 가방을 까맣게 잊고 자기 것이 맞다고 우기는 데는 할 말이 없었다.

문밖에서 기다리는 열쇠공을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었으나, 뭐라 설명하고 설득해서 보내야 할 지 내 짧은 어휘력은 적지 아니 당황케 만들었다.

또다시 가포를 호출하고 가방이 바뀐것 같다며 사정을 얘기하고, 저편 호텔에서 바뀐 가방을 가지고 이리로 온다는 연락을 받고 로비에서 일행 몇 명과 기다리다 피로함에 지쳐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 나는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 수 있었다.

여행 들쨍날

영풍한 가방소동으로 늦게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여행중이란 교감신경은 나의 육체를 일찌감치 일깨워 여섯시 십분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했다. 창밖은 이미 파도소리와 새소리, 인파의 소리들이 스물 스물 여명을 뚫고 나를 밖으로 불러내고 말았다.

모처럼의 여행에 그냥 방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간단한 복장으로 카메라를 챙겨 방문을 나섰다.

호텔주변과 발리 해변에서 만나는 한국에서 온 신선 여행객과 이미 대중화 되어 버린 동남아 여행 물결 속에 다소 많은 한국 관광객을 조우할 수 있었으며, 주로 동양계 여행객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시간은 여유가 있어 호텔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보았으나, 리조트 형태로 개발된 호텔 주변은 멀리 벗어날 수도 없는 지경이라 그냥 로비에 눌러 앉아 가이드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회원기고

오전 열시가 다 되어서 나타난 버스를 타고 삼십 여분 거리에 있다는 울루와뚜 절벽 사원으로 향하는 발리남부 루사루와 지역은 발리섬의 관광개발로 줄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며,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아들이 대저택과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87%의 인구가 이슬람이고, 열대지방의 특성상 여자 인구가 남자보다 많고, 주거형태는 콘크리트와 대나무를 이용한 대나무주택에 기와를 얹거나 갈대나 야자잎을 지붕으로 얹는 초가형태의 주택 구조로 특히 초가 형태의 농촌목조주택은 대부분 화장실이 없어 야외에서 일정한 형태로 처리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발리 지역을 버스투어 하면서 유독히 눈에 뜨인 것은 웬만한 집집마다 가족사원 형태의 작은 힌두사원들과 힌두 공동사원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일명 원숭이 숲이라고도 불리는 울루와뚜 절벽사원에 도착 후 버스에서 내리자 안내자는 특히 모자 안경 카메라 등 외부에 노출된 물건은 원숭이의 탈취 목표물이 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거나 아예 감추고 다니라고 강조했다.

나 역시 안경은 손에 쥐고, 모자는 아예 차에 두고, 볼펜과 카메라는 주머니에 넣은 채 몸쓸 원숭이가 행여 나타날까 조바심을 내며 살금살금 일행의 뒤를 밟아 절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다녔다. 가히 우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쟁탈자 원숭이들은 저들끼리 모여서 노닥거리며 우리를 보고 항변하듯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한가로이 이나 잡고 더러는 이리저리 돌아다닐 뿐 어느 동물원 원숭이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절벽을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코스를 향하다 사원에 제물을 바치러 가는 힌두신자로 보이는 가족인 듯한 맨발의 행렬을 볼 수 있었다.

절벽사원 관광을 마치고 버스가 기다리는 주차장으로 내려오니 야자열매를 수북이 쌓아놓은 노점상이 보였다. 한 개당 10,000루피 8,600루피가 우리 돈 1,100원 상당의 1달러의 값어치로 본다면 1달러가 조금 넘는 가격이었다. 가이드는 20명에 가까운 인원을 세 개의 테이블로 나누어 앉으라고 하더니 공정하게 세 곳에서 골고루 야자를 주문하는 것이었다. 일상에서 터득한 분배의 원칙을 지키는 본보기가 된 셈이었다.

즉석에서 빨대를 꽂아 마시는 야자수는 이온음료(국산 스포츠음료)의 맛과 흡사했다.

열한시 이십오분 이곳 방문이후 한식메뉴에 대한 불평 때문인지 현지식 야끼니꾸로 준비된 점심식사를 마치고 열두시 오십분 인근에 위치한 커피공장 견학에 나섰다.

한 시간 가량 커피공장 견학과 시내투어를 하면서 도심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의 도로사정과

가로수와 인근 농촌풍경이 다소 이채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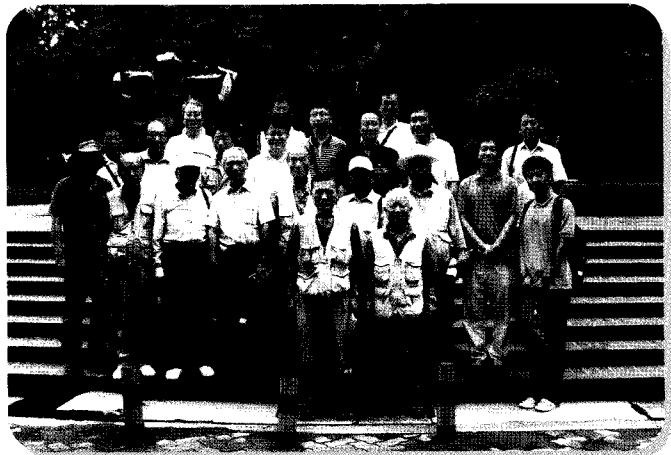
가로수로 심어진 망고나무 열매는 년 간 세 번 수확되고, 수확시기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사실과 주식으로 사용되는 벼 역시 90일이라는 기작으로 이론상 년 간 네번의 수확이 가능하나 부지런한 농부의 경우 삼모작 수확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빠른 일정소화로 다음 행선지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인지 인니 현지에서 생산되는 플로매장 견학에 나섰다. 현지가이드와 여행사 관계자의 조언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판매가 60% 정도의 대금으로 판매 한다는 말에 갑자기 집사람이 조그만 선물이라도 사오라는 당부가 꺾전을 맴돌아 가디건 두장과 야자나무로 만든 젓가락 몇 켤을 구입하고 버스로 돌아 오려는데, 현지인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 몇몇이 목각 수제 오토바이와 조각상을 흔들며 보이며 나를 유혹 하는 것이었다.

목각이나 골동품등 조각품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나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오토바이와 에로스상 두점을 즉석에서 사고 말았다. 사실 어제저녁 마트에서 과일을 사면서 나 혼자만의 쇼핑으로 여행용 가방을 불룩하게 부풀리고 차지한 목기가 몇 점 더 있다.

일행은 족자카르타로 떠나는 비행기 시간이 많은 탓으로 황실전통 맛사지 체험이라는 이름의 다리 맛사지를 받게 되었다. 허름한 건물내부에 커튼을 드리운 막사처럼 생긴 곳에서 우리나라 60~70년대 모기약으로 쓰이던 나프탈렌 향이랄까 입으로 병에든 모기약을 푸우하고 불면 독특한 냄새가 나던 그때 그 모기약 향을 마시며, 일제히 윗몸 일으키기 준비 자세를 취하자 맛사지 라는 의식이 한 시간 가량 진행 되었다.

다음 행선지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이동 하던 중 출발시간에 다소 여유가 있어 공항인근 해변에 위치한 쇼핑 센터에 들러 간단한 아이쇼핑으로 시간을 보내다 십팔시 오십분 GA255 비행기로 덴파샤 공항을 출발 한 시간여 비행으로 족자 카르타 수라비야공항 도착 (19:05)후 짐을 챙겨 공항을 나서자 우리를 태우려는 버스가 도착 했다.(십구시 사십분)



회원기고

가이드 한디스 한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했다는 가이드는 발리의 반대씨 보다는 다소 통역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족자의 시내를 달리니 발리와는 또 다른 거리의 풍경과 분위기가 느껴졌다. 310km²의 면적에 370만의 인구와 과거 인도네시아의 수도였으나 이제 제이의 도시로 다양한 인종과 다문화 교육도시로 120개의 대학이 있는 곳으로 열번째 왕이 실존하는 곳, 수도 자카르타와 600여km가 떨어져 비행기로 한시간 반 고속도로가 없는 관계로 버스로 11시간이 소요되는 도시로 설명되었다.

저녁은 가자마자 대학 인근 한식 전문점에서 그런대로 괜찮은 석식을 들 수가 있었다.

이십일시 십육분 숙소(HAYATT CLASS)도착 발리와 두 시간의 시차로 인하여 실제시간은 이미 늦은 시각이 되어 있었다.

10월 21일 이른 시각 머라피 활화산이 보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호텔 내 가능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보이는건 모두 주위를 에워싼 숲과 저 멀리 안개사이로 흐릿하게 드러나는 산의 형상뿐.

정형과 나는 첫날부터 한방을 쓰면서 가능하면 많은 곳을 볼 요량으로 이른 아침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호텔주변을 기웃거리며 산책에 나서고, 아침식사 또한 일행 중 먼저 마치고 다음 스케줄에 나설 준비를 갖추곤 했다.

오늘의 일정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세계 칠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보로보두루 불교 사원으로 향했다. 숙소에서 그리 멀지않은 거리에 위치한 불교 유적에 도착하자 또다시 가이드의 주의사항 하나가 전달 되었다.

현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노정상인과는 물건을 살 생각이 없다면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관광상품으로 수공예품 가방 우산 관광안내 사진 책자 등 다양한 소품을 들고 다니며 끈질기게 사라고 따라 다녔다. 우리 일행은



모처럼 유적이 보이는 저만치 거리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가이드의 안내로 유적 관람에 나섰다.

중부 자비에 위치한 이 불교유적은 가로세로 123m 높이 42m의 웅장한 석조 건물로 희로애락을 모토로한 불교사상에 의한 인간의 삶을 망라한 회화적인 조각상을 새기고 인간의 모든 삶을 압축한 것으로 웅대한 규모와 섬세한 조각에 감탄 할 만한 작품으로 보였으나, 잦은 자연재해와 훼손으로 인하여 점차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첨단 문명 사회를 걷고 있는 현재에도 재래식 장비인 손수레와 정과 망치 지렛대를 들고 원형 설계도나 복구 도면 등 아무 자료도 없이 경험에 의해 복원하고 있는 듯 하여 향후 얼마나 많은 복구시간과 원형 복원이 가능 할지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불멸의 이야기 부로보두루"

오전 열시 삼십분 우리를 태운 버스는 족자카르타 왕궁으로 향했다.

인도네시아는 1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다섯개의 큰섬에 대다수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127개의 활화산이 활동중이라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며 오늘도 머라피 화산에 대한 뉴스가 지면의 톱뉴스로 등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이지역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산석으로 만든 석공예품들이 도로변에 즐비하게 쌓여있고, 그 정교한 조각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었다.

(문달란면 슬래만군이라는 지역을 버스로 투어 할 쯤 창밖엔 타 지역서보다 더 깨끗한 도심 환경과 ...)

열한시 반쯤 시간이 흐르고 있는 현재 스코올 현상인지 건기인데도 한줄기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고 지나갔다. 열한시 오십분 족자카르타 옛 대통령궁 앞에 도착하자 수십명 규모로 보이는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대와 재래시장 인 듯 보이는 상가건물 앞에는 삼륜차량과 마차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인력거와 오토바이 등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탈것(교통수단)의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한줄기 비가 내린 뒤라 조금은 기온이 떨어진 듯 했으나 여전히 후덥지근한 날씨와 짙은 햇볕에 비 포장에 질퍽한 왕궁 마당은 걸어 다니기도 다소 불편 했다.

14ha의 면적에 1756년 건립되었고, 지금은 열 번째 왕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며, 바딕 이라는 수공염색직물들의 전시품과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와 유사한 가물란을 정기적으로 연주되고 있으며,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Raden Saleh(1814~1880)의 작품으로 그의 그림은 관람자의 위치에따라 그림의 방향이 바뀐다는 신기한 그림을 감상 할 수 있었다. 또한 관리인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 복장에 맨발로 생활하고 있음도 특이한 모습 이었다.

왕궁관람을 마치고 나오다 주차장에 심어진 크나리나무 라는 아름 들이 열대수목이 눈높이

회원기고

줄기에 탱자와 비슷한 열매를 달고 있어 신기한 나머지 카메라에 담고, 나무이름을 가르쳐준 아주머니로부터 천으로 만든 가방을 사서 버스가 기다리던 장소로 돌아오려니 약 20~30m 앞에서 이미 버스가 나만을 남겨두고 출발하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스톱을 외치며 전력질주하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중년의 행상인 한 사람이 버스를 제지하여 겨우 버스에 동승할 수 있었다.

왕궁과 그리 멀지않은 식당에서 하오 한시가 다된 시각 현지식으로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전용버스로 뺨람바난 사원으로 이동했다. 창조 파괴 보호의 삼대 신을 의미하는 세 개의 큰 탑을 둘러싼 많은 유적들이 2006년경 강진으로 일부는 완파되고 나머지 유적마저 부분적 훼손으로 복구 중에 있는 뺨람바난 사원의 폐허처럼 방치 된 듯 한 유적을 보면서 화려한 문화 유산들이 자칫 현대에 와서 무관심과 갖가지 오류로 인해서 사라지거나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서야만 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면서 자주 보아왔던 광경은 모든 건축물이나 구조물 축조와 개 보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던 샷보도와 아시바 파이프대신 대나무 장죽을 이용한 가설 시설을 하고 삼과 팽이를 합쳐놓은 호파처럼 생긴 수공구로 골재와 시멘트를 인력으로 혼합하여 송판이나 합판으로 만든 미장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듯 했다.

일사천리 진행된 족자의 여행도 서둘러 마감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했다.

십칠시 사십분 자카르타행 비행기는 한 시간여 운항으로 우리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로 데려다 주었다.

족자에서 탑승과 함께 조금씩 떨어지던 빗줄기가 자카르타에 도착해서도 가는 빗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공항 대합실을 나오자 가는 빗줄기속에 중년여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전통의 상차림에 맨발로 카트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 가끔씩 이곳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가 잠시나마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곳이 외국이라는 분위기는 직감으로 느끼면서도 저 맨발을 어찌나? 이런 저런 기우가 순간순간 뇌리를 스치다 또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온 듯 아 의례껏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는 안도를 하곤 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를 태울 버스가 도착해 일행을 태우고 시가지를 달리기 시작했다. 현지가이드 장복남(앙드레 장 이라는 닉네임 인듯함) 이라는 한국명을 가진 젊은 가이드가 첫 눈에도 한국어 실력은 별로 인 듯한 어조로 달리는 버스에서 자카르타를 소개 했다.

면적은 약 690km² 인구는 1,200만 정도이며, 인도네시아 전체면적이 한국의 열배 정도이며 17,000여 개의 섬 중 10,000여개가 유인(사람거주)도 이고 33개의 주가 있고, 시 군 면 단위의

하부 지자체가 있으며,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우리나라와 같은 해 8월 18일 독립을 맞아 대통령과 주지사 이하 지자체가 직선에 의한 지도자가 선출 된다고 하며,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인구 이억 오천에서 삼억에 언어도 250에서 약 400여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국영방송은 자카르타어를 사용하고 티브이나 공영 매체 드라마는 자카르타 사투리로 방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묵을 숙소로 향하는 길은 마침 퇴근 시간이어서 인지 몹시 정체를 일으키고 있었다.

주상복합 건물과 여러 개의 특급호텔이 밀집된 도심의 교통은 오토바이와 각종 차량들이 뒤엉켜 노상 주차장으로 바뀐 듯 무작정 기다리다 저녁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예약된 시간을 훨씬 지난시각에야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인근에 위치한 숙소(SULTAN JAKARTA CLASS)로 들어갈 수 있었다.

22일 금요일 아침 여섯시 기상, 일곱시 아침 식사 후 짐을 챙겨 여덟시 정각 버스가 출발하여 시내를 통과하는데 출근 시간과 도로사정 탓인지 버스는 대로를 달리다 갑자기 골목길을 우회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대로로 빠져 나오기를 몇 차례 반복하더니 한참 만에야 조금 한가로운 시골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서둘러 나오다 보니 물과 몇 가지 필수품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 지나는 길에 마트에 들러 물과 기호품 몇 가지를 구입 했다. 물이라고 포장된 것이 우리나라 처럼 페트병 형태로 판매되는 것도 일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두껍은 PP필름으로 포장한 음료를 박스 형태로 빨대를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룸펜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협소하고 요철이 심한 시골길을 연상케 하는 도로로 수십 굽이 비탈길을 지나며 조그만 실개천처럼 강이 흐르는 곳은 어김없이 혼다 양수기로 개울물을 끌어올려 함께 올라온 모래를 모아서 쌓아놓은 골재 채취장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구멍가게형태의 한 두 가구 건너 하나씩 있는 듯 한 잡화류나 음료 소형용기 부탄가스병에 든 휘발유 음료병에 넣은 관상용 불고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들을 볼 수 있었고, 체육교과 수업시간 인듯 어린학생들이 맨발로 황톳빛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골대는 대부분 대나무로 만들어 무척 이채로운 광경이었다.

임업인의 한사람으로써 열대식물원과 양묘장 견학 이라는 호기심에 다소 들뜬 기분으로 며칠째 강행군으로 몸은 피로 했지만, 한껏 기대에 부풀어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내 맡긴 채 창밖의 경관에 눈길을 빼앗겨 달려가고 있었다.

회원기고

중년은 넘어 보이는 버스 운전사도 안내 가이드도 남부 자카르타 청정지역인 롬핀으로 가는 지리정보가 불확실 한 듯 몇 번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열한시 이십분에야 롬핀 양묘장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재단) 이라는 간판이 붙은 열대 양묘장에 도착하자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파견근무 중인 홍창원 PM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며, 사업 전반(열대림 임목종자 관리 및 개발사업, 우량종자 선발육종과 한국 초청교육과 현지교육 및 산림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과 건설기자재 지원 등)에 대한 설명과 양묘장 곳곳을 안내하고, 그간의 사업현황과 성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OECD가입국으로 의무적 기여요구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OECD로부터 수혜를 받던 국가로는 최초로 기여국가의 입장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림(년간 43%) 자원의 훼손으로 황폐화 되고 있는 80%가 산림지역인 인도네시아의 산림복구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커다란 자긍심이 아닐 수 없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달려 왔지만 점심식사와 다음 스케줄로 일행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남부 자카르타 시내로 돌아와 오후 세시가 가까워져야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오후 일정은 산림조합 중앙회 조림지 견학 이었다.

서부자바 뿌르와카르타 푸룩잠베(꾸타뽀하찌) 자카르타에서 직선거리로 60km 버스로 한 시간 삼십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찾아가는 길. 도심을 벗어나 약 삼십분 가량을 달리니 여지껏 보아왔던 타 지역보다는 다소 넓직한 도로와 주변 경관은 꽤나 큰 농경지와 늪지대 등 큼직한 평원이 펼쳐져 있고, 동·중부지역을 지나며 넓은 공단지역이 나타나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다소 넓은 면적이긴 하나 경지정리는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경운기를 이용한 기계화 논같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추수와 왕성한 생육 중기의 벼와 모내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채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고속도로를 빠져 나오자 곧바로 도로 절반만 포장된 좁은 도로가 연결해 있고, 성인경 현지법인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산림조합 관계자가 우리를 안내할 소형버스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조림지로 향하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대형버스의 진입이 어렵다는 관계로



일행은 모든 짐은 버스에 두고 필수품만 챙겨들고 25인승 썸으로 보이는 미니버스로 옮겨 탔다.

우리나라 경인지역쯤으로 볼 수 있다는 곳이었지만 도로사정은 별반 다름바 없었으나, 깨끗한 주거 환경은 여타 지역보다 나아 보였다. 얼마를 더 달렸을까 가는 실비까지 내리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버스는 간간이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길가에서 대기하기도 하고, 탄력을 받아 오르막을 힘겹게 오르기를 수차례, 하오 다섯시를 넘길 시각 해발200~300m정도의 야트막한 야산 능선에 도착하자 막사처럼 지어진 관리사가 나타나고 현지인들로 보이는 작업 인부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았다.

가는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성인경 대표님의 현지 안내가 있었다.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조림사업은 10,000ha의 면적에 JOINT OPERATION 사업 방식으로 사업기간은 8년 단위로 연장하며, MINDI(민디), SENGON(셩온), ACACIA MANGIUM(아카시아 망귄) 수종을 심어 ha당 150~200km²의 목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지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놀란 사실은 올해 초 1월 달에 심었다는 나무가 벌써 직간생장 3m는 족히 자라 우리나라에서는 5년 이상은 자라야 가능할 것 같은 자람에 또한 약 7~8년이면 별채가 가능하다는 설명에 모두들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가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젠 나무 심기를 포기해야 겠구먼!" 하고 한마디씩 농담조의 푸념을 내뱉었다.

우리를 태우고 돌아갈 버스가 산길에서 되돌리려다 헛바퀴만 뱅뱅 거리다 억지로 돌려 세울 수 있었다.

하오 다섯시 오십분 우리는 현지견학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버스에 올랐다. 제법 굵은 빗줄기가 돌아서는 아쉬움의 표현일까 버스 지붕을 후두둑 때리기 시작하자 낡은 버스 맨 뒤편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버스는 아랑곳 하지 않고 어두워지는 비 포장길을 덜컹덜컹 이리 저리 마구 흔들리며 달려 갔다.

얼마를 달렸을까 빗속에 멈춰선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오토바이와 미니버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가장 덩치가 큰놈으로 보이는 트레일러 하나가 도로를 막고 서서 도저히 움직일줄 모르고 서 있었지만, 누구하자 푸념하거나 교통정리에 나서는데 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오 일곱시 십분 임지를 안내했던 미니버스는 우리를 내려주고 쏘살같이 사라졌다.

숙소로 돌아갈 버스에 올라 피곤한 몸은 천근만근으로 늘어졌다.

하오 여덟시 오십분 숙소에서 가까운 토담이라는 한식집에서 오늘 우리를 안내했던 자카르타

회원기고

주재 여러분들이 참석 하에 저녁 식사를 가지고 열시를 넘긴 시각 하루를 결산 했다.

인도네시아 마지막 날.

몇 일간의 바쁜 일정을 소화 하느라 모두들 피곤하기도 하려니와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을 맞추려다보니 다소 늦은 시각 숙소를 나섰다.

오전 아홉시 삼십분 토요일이라 근무가 없는 날이라 비상전원 이외의 전기조차 내려진 산림부 건물 육층에 자리한 우리들의 자랑스런 외교관들을 찾아 갔다.

국토와 산림 면적이 넓어서인지 모르나 산림부 장관이하 일곱개의 청장이 있다는 설명에 우리나라 산림관련 부서 규모와의 차이에 왜소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산림청 파견 이규태 부이사관, 한기주 박사, 인턴과정에 있다는 젊은 친구 세 사람이 우리나라 산림청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장차 탄소 배출권 획득을 위한 인도네시아 현지 활동 사항과 사업 분장에 대한 설명과 천연자원의 보고인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설명 들으며 향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가져야할 세계관과 자세에 대하여 많은 각성의 자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일행들은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아쉬움과 격려의 인사를 남긴 채 버스에 올랐다.

산림부 사무실에서 마신 오렌지 주스 탓인지 갑작스런 온도변화 탓인지 자꾸만 속이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고 복통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내를 돌아 골동품 골목 앞에 버스가 정차하자 모두들 골동품가게로 구경을 나섰다. 나 역시 골동품에 호기심이 유난한 편이라 이들과 합류했지만 뱃속의 반란은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더니 뒤골목을 흐르는 폐수에서 풍기는 악취를 들이키자 순식간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주체할 수 없었다.

버스로 달려가 휴지를 찾으려 소리쳐 보았지만, 아무도 휴지를 내미는 사람이 없어 가이드에게 화장실 이라고 외치자 오천 루피 지폐 한 장을 쥐어주며 뒷골목 사이로 나를 인도 했다.

급히 중년의사나이를 따라가자 화장실문을 열고 손짓을 했다.

다급한 상황에 우선 위로먼저 실례하고, 잽싸게 허리띠를 풀고 돌아앉았다.

순식간에 모든 걸 배설해도 시원치가 않아 한참을 앓아 있으려니 뒷 처리가 걱정이 되었다. 그 제야 옆에서 흐르는 수도가 보였다.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도 나는 기어이 목 조각상 하나를 사들고 차에 올랐다.

계속되는 복통으로 점심은 아예 포기하고 버스에서 잠을 청하고 누웠다 다시 박물관과 시내 투어는 계속 되었고, 오후 다섯시 경 자카르타 시내에 위치한 쇼핑타운에서 다소 기력을 회복하고



마지막 짐을 챙겨 평양관이라는 북한 식당에서의 저녁과 짝막한 공연마저도 건성으로 마친채 버스로 돌아와 길게 누웠다.

하오 아홉시 이십분 비행기로 귀국길에 올랐다.

어제 오늘의 뉴스 속에 인도네시아의 해일과 화산활동 소식을 접하며 이제 바로 이웃의

일인양 가슴조이며 선량한 그들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 한켠이 생각나고, 짧은나마 첫 해외 나들이를 하면서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내 외국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는 다소 차이와 몰이해도 있었고, 단기간 우리나라가 성장해온 자취는 가히 괄목할만한 성장이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끈기 있고 지혜로운 국민성과 조국애를 다지는 계기를 준 산림청 행사에 감사의 마음을 새기며, 대한민국 구성원 하나 하나가 맡은바 책무에 성실함에 다시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출발부터 모든 여정을 함께하며 수족이 되어준 정동화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빔으로 새기겠습니다. 늘 건강 하십시오.

2010년 10월 말일

권태종 드림